

보도시점 2024. 6. 26.(수) 10:00 배포 2024. 6. 26.(수) 9:00

‘청년, 금융을 나답게’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 ✓ 청년들이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히며,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참여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 ✓ **교육이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춰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
- ✓ **유튜버 협업, 인스타툰,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챌린지·인증 이벤트**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형 캠페인** 전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26일(수)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과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4.6.26.(수) 10: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및 금융감독원
- 금융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9개 관계기관*

*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YMCA,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7개)

◇ 논의 안건 : ①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②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③ 2023년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결과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최근 들어 안전한 방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적은 돈이라도 직접 투자하여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ISA 혜택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이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 ✓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하는 적금
- ✓ **ISA 혜택확대**: 예금·펀드·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계좌(ISA)의 **비과세한도(200만원)** 및 **납입한도(연 2천만원)**를 **상향**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를 유도하여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오늘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2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의결안건인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 가상자산·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2·30대를 중심으로 빚내어 투자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청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도 제고 방식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과, 금융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는 판단 아래,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매체를 통해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일상적 금융거래 경험 및 고민거리 등을 공유하면서 금융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추어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 관련 금융지식과, 금융교육 콘텐츠 활용 정보 등을 뉴스레터, 뉴미디어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초 익히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금융거래 상황별 교육내용 예시 〉

- ✓ 카드발급 대학생 : 소득에 맞는 지출관리법, 신용관리의 필요성 등
- ✓ 군 장병 :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지원 목돈 만들기 상품 가입 및 활용법 등
- ✓ 증권계좌 개설 청년 : 신용융자 거래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활용법, 연말정산 절세가이드 등
- ✓ 주택금융 이용자 :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읽는 법 등

이를 위해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상식을 익히도록 구독형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재미있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금융소식 등을 전달하고,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금융지식 습득 및 금융체력 키우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며,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이용정보 등을 담은 인포그래픽, 브로슈어 등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교육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본인만의 견고한 금융습관 형성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자기주도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습관 형성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 이수실적 및 스스로의 금융습관 등을 공유하는 금융교육 이수·인증 챌린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융토크 콘서트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구독형 뉴스레터(예시) >



< 토크콘서트 >



보고안건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 각 기관들의 금융교육 실적과 함께 청년층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한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어서 2023년 처음 실시된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을 비롯하여 민간 금융회사들도 ‘금융을 나답게’ 라는 캠페인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금융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감독당국도 그동안 추진해온 「e-금융교육센터」 고도화 작업 등을 연내 완료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교육 및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630)
		담당자	사무관	이은진	(02-2100-2642)
			주무관	이혜인	(02-2100-2633)
<협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기정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임재원	(02-2100-1688)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책임자	국 장	김필환	(02-3145-5970)
		담당자	팀 장	신동호	(02-3145-5972)